

LNK(LoveNorthKorea) 주간 기도(0902)

1. “억류는 없다,적들의 인권 공작일 뿐” 강제북송된 선교사와 탈북민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북한이 강제북송된 탈북민과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국의 인권단체가 지난 5 월과 7 월에 보낸 서한에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한 장짜리 공식 답변서가 왔다. 그는 “언급된 모든 혐의들이 반복 ‘인권’ 공작의 일환”이라며 반발했으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북한에 억류된 자들을 계속 기억하여 기도해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자유롭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기도한다.¹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도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하라”

히브리서 13 장 3 절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북한 감옥에 갇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탈북민들을 기억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자유의 몸이 되어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남한 정부의 대통령과 관련 부처의 해당 공직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석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모세와 바울을 본보기로 삼아 이들이 구출받아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¹ 2010 년 이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남한 국민- 선교사(3 명) + 탈북민 출신 남한 국적자 (3 명).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위협에 처하거나 굶주릴 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 사람들

- 김정욱 선교사 : 2007 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보호시설 3 개 운영 중 2013 년 10 월 8 일 북한 당국에 체포.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열악한 조건에서 주 6 일, 일 10 시간 중노동에 처해짐.
- 김국기 선교사 : 2003 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보호시설 1 개 운영 중 2014 년 10 월에 북한 당국에 체포. 2015 년 6 월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 최춘길 선교사 :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2014 년 10 월 체포. 2015 년 6 월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 탈북민 출신 중국에서 탈북민 지원활동을 하던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2. 북한 노동자, 현지인이 버린 물건 주워 귀국



“러시아 소재 북한 건설회사 노동자 10 여 명이 최근 국가계획분을 달성하지 못해 귀국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북한 건설회사의 일감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는데 노동자들이 그 책임을 지고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런 가운데 귀국 명령을 받은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옷과 신발, 가방 등을 마구잡이로 주어와 자신들의 귀국 집에 담아서 돌아갔다고 한다.” 데일리 NK 보도 내용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귀국 노동자들의 삶을 인도해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은 당신께 대한 찬송처럼 땅끝까지 이르며 당신의 오른손에는 공의가 충만합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평생토록 인도하는 분이시다”

시편 48편 10절 14절 말씀으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을 과도하게 착취당하며 노예처럼 일했는데 정작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들이 고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힘들고 고된 삶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여 황폐한 그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돌격대, 물자 공급 없이 수해 복구 현장에 내몰려



“평안북도 수해 지역으로 파견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현지에서 숙식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 고통이 가중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돌격대는 침수로 무너진 살림집 속에서 목재와 벽돌 등을 건져내 임시 숙소를 짓고, 폭우가 쓸고 간 개인집 텃밭이나 수해를 입지 않은 집 창고에서 구멍탄(연탄)과 염장 양배추 등을 훔쳐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수해 지역에 돌격대가 아닌 도둑을 파견한 게 아니냐는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하는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다시 그 땅을 휘감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부디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련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당신은 나의 도움이며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 편 1 절, 5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는 살아갈 방도가 없는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경책이 보내져 복음에 눈뜨게 하시고, 부족한 생필품과 양식이 공급되어 그들의 육체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다시 한 번 그 땅을 강타해 부흥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모든 북한 성도에게 성경이 보내지게 하옵소서



“옛날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진리를 알고 나니 보입니다. 여기에 옛날부터 예수를 믿었던 할머니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알고 나니 믿는 성도들의 말이 들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성경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때 성경을 더 가져오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최근 북한 성도와 어렵게 연락이 되어 듣게 된 감격 어린 소식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숨죽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성경책이 금년과 내년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로서 해야 하고 누구든지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섬기라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이 있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4 장 11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북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발각되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는 자들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의 표식을 드러냄으로 핏줄과 핏줄이 연결되어 몸을 이루듯 알게 하사 서로의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이 보내지고 저들의 손에 들려져 읽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